

농협김치,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심사 통과

□ 주요내용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농협식품조합공동사업법인 남양사업소 생산공장에서 실시된 말레이시아 이슬람발전부(JAKIM) 할랄(Halal) 인증 심사에서 경기농협식품이 공급하는 농협김치 26개 전 품목이 인증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농협식품은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할랄 인증 농협김치 공급을 100만 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농협식품은 지난해 국내 항공사에 기내식 김치 33만 달러어치를 납품한 실적이 있다.

농협중앙회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지난해 전세계 할랄시장에 전년대비 60% 증가한 1200만 달러 규모의 농식품을 수출했다”면서, “앞으로 서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수출용 쌀, 농협홍삼의 한삼인 브랜드 등 농협 전체 품목으로 할랄 인증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가 및 판촉행사를 적극 전개해 세계 할랄 식품 시장으로의 농협 농식품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코리안프레스 2016/04/27)

□ 시사점

최근 할랄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국가 차원에서 할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 시 할랄여부가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말레이시아 진출 시 JAKIM 할랄인증 관련 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